

중기벤처부, 태서 스타트업 서밋 개최

AI·핀테크 등 4차혁명 비전으로 '기회의 땅' 동남아 선점

태국 현지기업·기관과 업무협약
 韓 4개 스타트업·泰 기업 MOU
 스타트업 IR, 비즈니스 상담회 등

한국 스타트업들이 아세안 핵심국가인 태국에 진출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4개 스타트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태국 현지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태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부터 1박 2일간 태국 방콕에서 '국경없는 스타트업, 하나의 생태계(Borderless Startup, One Ecosystem)'를 주제로 '한·태국 스타트업 서밋 및 계약체결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경기장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벤처 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 IR, 쇼케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계약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의 스포트라이트는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

〈태국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 4개사 사업 내용 및 파트너·계약 내용〉

번호	韓 스타트업	사업 내용	태국 현지 파트너	계약 내용
1	(주)엘비전테크	스마트폰용 ARMR 글라스 등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EXCEL 그룹 MONO 그룹	*태국의 생산유통 중견기업인 EXCEL 그룹과 160만달러 규모의 구매 조건부 계약 *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인 MONO 그룹과 OTT 사업 등 분야 업무협약
2	(주)플라즈맵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제조	출랄롱콘(Chulalongkorn)대학 치의대	*태국의 1위 치의과 대학인출랄롱콘(Chulalongkorn)대학 치의대와 협약, 차세대 멸균기의 현지 거래 및 판매 계약
3	보맵(주)	모바일 보험 통합 솔루션 통한 보험 통합관리업 운영	처브(Chubb)의 태국법인 JP INSURANCE	*글로벌 1위 개인손해보험사인 처브(Chubb) 태국법인과 보험상품을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태국 JP INSURANCE와 MOU
4	(주)Moloco	AI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운영	트루 디지털 플러스 (True Digital Plus)	*태국 3위의 이동통신사 트루(True DigitalPlus)와 모바일 마케팅 협력

야 스타트업 4개사는 태국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엘비전테크는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스마트폰용 AR/MR 글라스 등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기업이다. 엘비전테크는 태국의 생산·유통중견기업인 엑셀그룹과 160만 달러 규모의 구매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인 모노그룹과 OTT(오버더톱) 사업 등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라즈맵은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를 만든다. KAIST 물리학과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시작돼 2015년 사업을

시작한 플라즈맵은 의료용 저온살균기로 유럽 의료기기 국제규격(CE), 캐나다 연방 보건부 인증 등 해외 인증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태국 방콕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플라즈맵은 태국의 1위 치의과 대학인 출랄롱콘대학 치의대와 협약을 맺고 차세대 멸균기의 현지 거래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보맵은 모바일 보험 통합 솔루션으로 보험 통합관리업을 만드는 핀테크 기업이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보맵은 통합관리업을 통해 보험 가입·확인·조회·

청구 등 비대면으로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 마켓과 보험 선물하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맵은 글로벌 1위 개인손해보험사인 처브의 태국법인과 협력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한다. 아울러 태국 JP 인슈어런스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모로코는 모바일 광고 기술 회사로 AI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모로코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광고 집행 및 성과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

는 태국 3위의 이동통신사 트루의 자회사인 트루 디지털 플러스와 모바일 마케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모로코는 SK텔레콤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한·태국 민간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에서 11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기관 간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태국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창업 및 혁신 전담기관인 국가혁신원(NIA)과 스타트업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창업진흥원은 태국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이노스페이스와 창업·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타트업 IR에서는 양국 스타트업 19개사가 참여해 IR 피칭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키오스크 로봇을 개발한 '포도씨', 소형 디자인 캔 밀봉기를 만든 '이웰스', 쉬운 코딩키트 등 교육 학습 도구를 만드는 '플레이블' 등 총 12개 기업이 태국 VC 투자자와 기업인 앞에서 제품과 태국 진출계획을 발표했다.

/배한남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우체국, 특별소통 기간 운영

17일까지 비상근무체계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소통기간 약 1800만 건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하루 평균 177만개(근무일 기준)로 평소보다 47%, 전년보다 12% 증가한 물량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보조인력 1300여명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3060여 대의 운송차량과 각종 소통장비를 동원해 정시 배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력, 차량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아침 출국 전 안전 체크 실시 및 차량 등을 점검하는 안전검문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



우정사업 종사자가 배달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다. 또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안전대책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선물 우편물이 안전하게 정시에 배송되기 위해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포장 ▲우편물 도착통지, 배송상황 알림 등 보다 편리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등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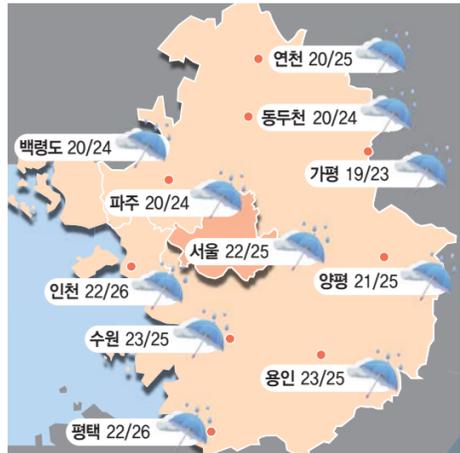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날씨

9월 4일 (수)
 음력 : 8월 6일

수도권 날씨
 25~22°C

운동 지수: 4/5
 빨래 지수: 4/5
 세차 지수: 3/5
 외출 지수: 4/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오늘부터 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류나 전자(카드)형태로만 판매·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이 오늘부터 모바일로도 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행되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기부는 발행 액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크) ▲대구은행(DGB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전북은행(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 등 6개 결제앱을 통해 구매 및 결제할 수 있다.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며, 결제 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아울러, 오는 9일 도입 예정인 쿠팡(체크페이)앱을 활용하면 농협 등 6개 참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계좌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쿠팡(체크페이)앱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오는 9일, iOS에서는 오는 20일 도입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개인 구매 고객은 2000억원 발행 시

까지 10%의 할인이 적용돼 매일 50만 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 할 수 있다. 기존 종이류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5%였다. 발행금액 2000억원 초과 시부터 연말까지는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나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편리하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의 전통시장·상점이 상인은 별도 수수료 없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배한남 기자

중소옴부즈만, 중부권 규제애로 간담회



중부지방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옴부즈만은 3일 대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충북·충남·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중부권 중소기업 규제애로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목적으로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 사업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는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

고 개별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을 비롯해 충북·충남·강원지역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해 규제 애로 관련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여해 중부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 중 ▲LNG 보급 확대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 지원 ▲출소자고용 일터 나눔허그(HUG)기업 인증기업에 조달행정 가점 부여 ▲납품 잔량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보증서) 개선은 관련 부처에서 즉각 검토하기로 했다. 이회 건의 사항은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배한남 기자

한일오닉스 강대선 대표이사 영입

주방 설비 기업 한일오닉스는 강대선 전 팍스넷 사장을 대표이사(사진)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일오닉스는 주방 설계·제조를 넘어 글로벌 푸드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강대선 대표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강대선 신임대표는 하나대투증권, SK텔레콤, STX그룹, 한국벤처투자를 거쳐 팍스넷에서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강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통신·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홍보·신규사업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경영전략 전문가다. /배한남 기자

